

전후(戰後)의 불모지에 피워낸 전인교육(全人教育)의 꽃: 호재(岫在) 함재홍(咸載弘) 선생님의 헌신적 사도(師道)의 향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이 흥 재

“야,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돌맹이가 들성들성 튀어나와 있고 아직 잘 다듬지 않아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공터. 한 겨울 오전 이곳에 모여 놀던 어린이들이 브라운 색의 낙타 외투를 걸치고 성큼 성큼 철조망 교문으로 들어서서 선생님을 보고 외치며 달려간다.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맨손체조를 하고서 가볍게 달리기를 하며 몸을 데운 뒤 들어서서 판자 집 가교실.

추운 겨울방학 난로도 없는 맨 흙바닥의 판자 집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해맑은 눈의 초등학교 4학년 꼬맹이들. 한편에선 도화지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다른 쪽에선 글짓기를 하고, 몇몇은 한 구석에서 웅변연습을 하는 꼬맹이들의 열기로 가득 찬 교실. 이들 어린이 하나하나를 보살피고 고쳐 주고 가르치며 전인교육에 몰두하는 20대 후반의 영화배우처럼 잘 생긴 열정에 넘친 청년교사. 바로 이 청년교사가 필자의 초등학교 4학년 1반부터 졸업 때까지 3년간 담임을 한 호재(岫在) 함재홍(咸載弘) 선생님이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 2년 후인 1955년 12월 하순경, 부산 동구 수정동의 수정산 중턱에 새로 세워진 수성초등학교 4학년 1반의 겨울방학 자율특별활동 시간 모습이다.

수정학교에서 분리되어 산중턱에 신설된 황량한 수성학교

수성초등학교는 산동네 학교로서 수정산 기슭의 경남여고와 시내의 부산진역 사이에 있는 수정초등학교로부터 분리된 신설 학교였다. 뒤로 고아원 건물이 있고 앞으로는 저 멀리 부산 앞바다의 수평선이 보이는 수정산 중턱에 판자집 가교사 3채로 출발한 것이 수성초등학교의 시작이다. 4학년 학생 4반가량이 수정초등학교로부터 분리된 수성초등학교는 1, 2반은 남학생, 3반은 남여 혼합, 4반은 여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졸업할 때까지 새로운 반 편성 없이 같은 반 담임 선생님과 학생이 3년간 졸업 같이 하였다. 이때의 4학년이 최고학년이었으므로 우리는 수성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지리산 전투를 피하여 고향을 떠나 부산 수정초등학교 1학년이 된 나는 1, 2학년 동안은 천막이나 판자 집의 가교사에서 공부를 하였다. 당시 부산지역 맞은 편 동아중학교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수정시장에서는 미군의 먹다 남은 찌꺼기음식을 함께 끓인 이른바 ‘꿀꿀이 죽’을 팔았다. 낯선 이방인의 세계. 우리 꼬맹이들은 “헬로 기브 미 초코렛”하며 미군부대 철조망 너머의 미군들에게 손을 벌리곤 하였다.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서로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던 철없던 가난과 비굴의 시절 ... ‘꿀꿀이 죽’도 사 먹을 돈이 없어 이를 먹는 사람들의 입만 멍하니 쳐다보며 침 흘리는 희멀건 눈동자의 누더기 어린애들 ...

“맨손 체조 시작, 먼저 숨쉬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침 조례가 끝난 뒤 우렁찬 구령을 부치며 활기차고 유연하게 교단 위에서 전교 어린이들에게 맨손체조의 시범을 보이며 리드하는 멋진 색깔의 스웨터를 입은 청년교사. 번듯한 2층의 목조건물 교사가 기억 자 형으로 자리한 부산 수정초등학교의 넓은 운동장. 휴전협정 후 1954년 봄에야 비로소 본교 교사에서 맞이한 우리들 3학년. 그 화창한 봄날 오전에 처음 빈 맨손체조 지도의 청년교사가 1년 뒤 4학년부터 3년간 담임을 할 함재홍 선생님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처음으로 신발을 벗고 마루바닥에서 공부하는 3학년 우리들은 골마루와 교실을 반들거릴 정도로 매일 청소하며 운동장에서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마음껏 달리기도 하였다. 그 무렵 방과 후 청년교사들만의 배구시합이 종종 벌어졌는데, 그 ‘맨손체조 선생님’은 종횡무진으로 스파이크를 성공시켜 우리들의 탄성을 자아내었다. 뿐만 아니라 링 체조를 할 때의 그 선생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얀 색 운동복 바지와 런닝셔츠 차림으로 손목에 하얀 붕대를 감고서 링을 잡은 두 팔을 떨리는 듯 약간 좌우로 균형 있게 벌리며 공중에 꼳꼳하게 물구나무를 서는 그 시원하게 뻗은 단정한 자태! 그 때는 함 선생님의 성함도 모르고 단지 늙름한 만능 운동선수의 멋쟁이 청년 선생님이름으로 가슴에 새길 뿐이었다.

커다란 강당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는 봄철의 학예회에서 3학년을 대표한 우리는 운창곡을 선보였으며 가을에는 전체 운동회가 열려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편으로 충격적인 일도 목격하였다. 그 해 5월 말경 학교운동장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선거후보 연설회에서 선비처럼 꼳꼳한 안학순 후보가 ‘전진한 지지’라고 자진사퇴하며 쓰는 혈서. 뒤이어 등단한 전진한 후보가 열변을 토하고 내려오자 북부산경찰서 사복형사들에 의해 잡혀가는 살벌한 진풍경.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꼬맹이들만도 아니었다. “찍어 주자 전진한, 먹어 주자 ○○”라며 골목을 돌며 외치는 3학년짜리 꼬맹이들이었다. 두 후보를 아는 집안 어른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후 정치적 계절의 삭풍은 보통의 어린애들에게까지 조숙한 비판적 감각을 할꺠어 냈기 때문이다.

산동네 학교의 학급자치회를 통한 자율적 환경미화와 학급문고 설치

그러나 4학년이 되자 상황은 반전되었다.

번듯한 교사는커녕 평지의 천막이나 가교사가 아니라 바람 휘몰아치는 산 중턱의 을씨년스러운 삭막한 가교사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학생수의 팽창으로 수정초등학교 건물은 수용능력의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분교가 아니라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수정초등학교보다 북쪽에 자리 잡은 경남여고 교문이 있는 간선도로 위쪽에 사는 4학년 학생이 신설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온 피난민의 대량증가는 학령아동의 대폭팽창을 가져온 결과였기 때문이다.

경남여고와 그 위의 북쪽에 있는 경남여중 근처의 수정산 기슭의 집과는 달리 신설된 수정초등학교가 자리한 수정산 중턱 주변의 집은 주로 이른바 ‘하꼬방’이라 부르는 무허가 판자 집이나 흙집 등이 밀집돼 있었다. 산동네의 난민촌이었다. 당시 해안선 근처를 따라 길쭉하게 가로로 형성된 좁은 부산의 주택실정으로 보아 한국전쟁 후의 산동네의 난민촌 형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다른 산동네와는 달리 수정초등학교에서는 저 멀리 오륙도와 현해탄의 확 트인 수평선이 눈 앞 가득 시원스럽게 보이는 것이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학교 위 산 쪽 끝에 있는 고아원의 원생들은 물론 수정초등학교로 다니게 되어 그 중 한 명이 4학년 1반 친구로 되었다. 그 C군은 비교적 나이가 많았고 다부진 체격의 영리한 싸움꾼이었지만 우리들의 ‘정겨운 영웅’ 노릇을 하였다. 학생들의 옷차림이나 생활자세는 천차만별이었다. 누런 코를 흘리며 수시로 그것을 닦은 소맷자락이 반짝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에 기계독이 올라 부스럼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 겨울이면 시꺼먼 때 낀 손등이 추위에 얼어 터서 피가 나는 친구들….

그래도 우리를 가슴 벅차게 했던 것은 4학년 1반 담임으로 그 멋진 함 선생님이 오신 것이다. 아, 정말 이럴 수가……!

우리는 선생님의 지도 하에 분단을 단위로 하는 학급자치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자치회를 열어 다음 주의 청소 및 환경미화, 생활과 학습의 개선문제 등에 관한 주요안건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다. 물론 다음 주의 주훈(週訓)도 정하였다. 교실과 화장실 청소당번, 화단 당번, 물 길어오기 당번 등 모든 사항은 분단을 단위로 하여 분단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주단위로 돌아가며 담당하였다. 특히 교실 밖 화단 가꾸기는 여름철의 경우 어느 분단 하나라도 이를 게을리 하면 당장 앞이 시들거나 꽃이 죽게 되어 서로 협동하여 맡은 바 역할을 부지런하게 수행하였다. 비록 교실은 판자 집 건물로서 맨 흙바닥에 지붕은 코올탈로 칠해져 볼 품 없었지만 실내는 청소를 깨끗이 하여 흙바닥이 맨들맨들하였고 교실 밖은 봄에

서 가을까지 제 철에 어울리는 꽃과 식물을 가꾸어 아름다운 화단을 꾸몄다.

교실 안 뒷벽에는 우리가 그린 그림이나 붓글씨로 쓴 습자, 글짓기한 작문 중에서 선발된 것을 중심으로 전시한 환경미화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못걸이를 하여 책을 걸어 두는 학급문고도 조출하게 갖추었다. 그때는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는 어린이용 책이 너무 귀해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처지였다. 정기 학생월간지 『학원』이나 『새 벗』을 읽기는 고사하고 그런 잡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현실이었다. 몇몇이 손쉽게 가는 곳이 만화방이었지만 그것도 갖 설립된 수성초등학교 근처에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곧잘 작년까지 다니던 수정초등학교 아래 길가에 있는 만화방까지 진출하였다. 김종래의 『복수의 칼』, 박기당의 만화, 그리고 『밀림의 왕자』 등이 인기 품목이었다. 그곳에서 수정학교에 그대로 다니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그들이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만화 샅까지 내는 놈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어울려 만화방을 나와 수정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함께 달음박질을 하거나 오랜만에 철봉에 매달려 석양놀이 질 때까지 놀곤 하였다. 그때 열두어 권 남짓한 학급문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머루』였다. 처음으로 접하게 된 단편 소설집이었다. 같은 반 친구 오 윤의 아버지가 『머루』의 작가 오영수 소설가란 사실을 그 때서야 우리는 처음 알았다. 오 윤은 아버지가 『현대문학』 편집장으로 일하게 되어 서울로 전학을 갔다. ‘칼노래’, ‘도깨비’ 등의 명작판화를 남긴 ‘민족화가’ 오윤은 1986년 만 40세에 타계하였다.

상부상조의 협동생활을 유도하고 배구팀을 우승시킨 지도력

6학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생님께서 학급의 K군과 짝지가 되도록 나의 자리를 특별히 배정하였다. K군은 힘이 세고 마음씨는 고우나 아직도 코를 흘리며 말을 약간 더듬는 고집불통이었다. 공부는 꼴찌였다. 눈이 크고 동그란 K군은 나와 짝지가 되면 함박웃음을 지으며 반길 줄 짐작했는데 오히려 시무룩한 표정으로 심기가 불편한 얼굴이 되었다. 한동안 나는 그저 평소대로 지내었다. 얼마를 지나 수업이 끝나면 교실에 남아 숙제를 같이 하거나 화단 정리도 자율적으로 함께 하였다. 공부는 지겨워하지만 K군은 화단에서 흙 북돋우고 물 뿌리며 화초를 돌보는 일은 단연 발군이였다. 이런 일에 서투른 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썩 웃으며 손짓으로 지시를 하면서 코를 한번 쓱 문지르는 K군의 밝은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방과 후 우리는 교문 밖 근처에 있는 같은 반 B군의 집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였다. 나이가 많고 키가 크면서도 착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B군의 홀어머니는 수정시장에서 난전장사를 하기 때문에 B군의 단칸방 흙집은 우리들의 아지트로써는 안성맞춤이었다. 비슷한 처지

에 있는 P군도 어울려 우리 네 명은 같이 숙제도 하고 저녁이면 밥도 해 먹으며 지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시험에서 이들의 성적이 올라갔다. 화단 가꾸기나 실과시간의 힘쓰는 일에 애를 먹는 나를 이들 세 명은 번갈아 가며 도와주어 우리 ‘4인방’은 공조체제를 확립한 셈이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상부상조를 멀리서 유도한 것이리라. 공부도 잘하고 그림실력도 빼어나며 체격이 크고 인물도 준수한 J군은 우리들의 ‘맏형’ 노릇을 하였다. 그는 수업시작 전에는 책상을 말로 삼아 미국영화 ‘베라크루스’의 백미인 케리 쿠퍼와 버트 랑 카스트의 권총대결을 곧잘 흉내 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였다. 휴집에서 살던 J군의 할머니는 부산진역 근처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였다. 방과 후 J군은 그 옆에서 구두닦기도 하고 양담배도 팔며 여름철에는 아이스크리 장사도 하였는데 우리들 몇몇은 J군과 같이 늘 함께 행동하여 할머니를 흐뭇하게 하였다. 꼬맹이들의 우정은 이렇듯 절박한 생존현장에서 날로 속 깊이 영글어갔다.

선생님의 열정적 지도력은 6학년이 된 후 더욱 빛을 발하였다.

위에서 말한 우리 반의 J군, B군, P군 3반의 H군을 주축으로 한 배구팀을 조직하여 제대로 된 운동장도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나는 훈련을 거듭하였다. 그 해 부산 전체 초등학교 배구시합에서 첫 출전한 수성초등학교 배구팀이 우승의 쾌거를 이룩했던 것이다. 부산 시내의 전통 있는 유수의 명문 초등학교를 제치고 무명의 신설 산동네 학교인 수성초등학교가 우승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는가? 응원 간 우리 학생들의 기쁨이야 말할 나위도 없었겠지만 우승으로 이끌도록 지도한 함 선생님의 감회는 어떠했을까? 통쾌무비였을까 아니면 통한의 씁쓸함이었을까? 특히 수성초등학교 배구팀에 대하여…….

그림에 조예가 깊어 수채화까지 선생님께서 지도했던 J군도 부산 초등학교 전체 사생대회에 나아가게 하였고, 또한 초등학교 전체의 웅변대회에도 선생님은 4반의 L양과 나를 대표로 내 보내어 자신감을 키워주며 수성초등학교의 이름을 빛나게 하였던 것이다.

‘꿈과 자신감의 혼불’을 지핀 우국 청년교사의 열정과 용기

선생님의 수업시작 방식은 남다른 특징이 있었다. 정식으로 제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 1시간 전까지 전원 출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침예습을 공동으로 하자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감동이 있었다. 40분 정도의 예습이 끝난 뒤 전원 기립하여 급장이 밤새 학급에 보관하였던 태극기를 선생님께 증정하면 선생님은 태극기를 칠판 옆의 계양꽃이에 걸고 나서 20분 정도 열변을 토하셨다. 당시의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때로는 국내외 위인이나 선구적 사상가의 본받을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재미나는 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을 상대로 과연 어느 선생님이 이런 ‘혼의 씨앗’을 뿌릴 열정과 용기를 가졌을까? 더욱이 전후의 폐허에 버려진 궁핍한 산동네의 코흘리개 소년들에게 ‘꿈과 자신감의 혼 불’을 지피는 선생님이 얼마나 계셨을까? 읽을거리와 볼거리가 거의 없는 무지 상태의 어린이에게 혼자 연기를 해가며 신기한 얘기를 들려주는 ‘단독 시청각교육’을 시도한 선생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선생님의 말씀 중 지금까지 기억나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잊혀진 것도 많지만 그 모두가 우리 반 학생들의 성장에 올바른 자양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음악가이고 의사로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헌신적으로 벌이는 슈바이처 박사의 얘기는 두고두고 되풀이하여 말씀하셨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꿈을 다지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암굴 왕’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섬 감옥 탈출 장면과 그 뒤 벌이는 모험한 사람에 대한 복수극은 정말 통쾌하기 그지없었다. 선생님 특유의 연기력과 음성으로 들었던 당시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얘기만큼 가슴이 울렁거리고 밤새도록 상상의 나라를 펼치던 적은 그 후론 거의 없었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이 밖에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일본 근현대사의 세 인물에 관한 얘기는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나는 줄곧 이를 항상 되새김질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본래의 사실과는 달리 적당히 각색도 하였을 것이고, 들었던 우리들의 기억력도 정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그 대강의 줄거리는 지금도 선명할 정도이다. 선생님께서는 그 인물들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정열적인 몸짓과 음성으로 실감나게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였다.

첫 번째 얘기는 4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시골의 어느 사설학당에서 공부를 하던 중, 정변으로 발생한 무력충돌로 인해 쏜 총알에 맞은 어느 학생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다. 놀란 학생들이 겁에 질려 숨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해 비통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타이른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대로 앉아 계속 공부를 하자꾸나.” 총알이 날아오는 와중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쫓아 바른 자세로 앉아 공부를 계속 하였다. 이 제자들이 성장하여 일본 명치유신의 주역들이 되었다. 그들은 유신사업을 이룬 뒤 그 모두가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이라 생각하고 옛날 스승님을 뵈러 고향으로 찾아 갔다. 그러나 이미 그 스승님은 감옥에서 훨씬 전에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자들은 통곡하며 몸부림만 칠 뿐이었다.

6학년 때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였는데 그 두 번째 얘기는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다.

일본에는 전국의 천재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제 일고(一高)이다. 일고에 입학하면 동경제대에

쉽게 들어가게 되고 각 분야의 엘리트로서의 입신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다. 영어, 독일어, 불어로 직접 강의를 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학생간의 경쟁도 치열하여 기숙사는 밤새 공부열기로 전등이 꺼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국가 관료양성 위주의 엘리트 교육에 회의를 느낀 어느 학생이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안고 빈민과 고뇌의 사투를 계속하였다. 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학생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도무지 알 수 없도다.”라는 글을 폭포가 있는 벽에 새겨놓고는 그 폭포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그 뒤 그 폭포에서 자살하는 이가 속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엘리트위주의 경쟁교육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폐결핵을 앓던 일본의 어느 청년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생명을 건지자 세상의 가난하고 불쌍한 약자들을 위해 평생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그 청년이 가르치던 어린 여학생이 부모의 가난 때문에 유곽으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그 유곽이 있는 빈민촌에 뛰어들어가 살면서 구제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갈수록 더욱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될 뿐이었다. 마침내 그 청년은 한계를 느낀 나머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유학을 하고 돌아온 뒤 농촌자립운동,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결국 농민이나 노동자가 가난과 병고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을 벌일 것을 호소하며 그 청년은 이 일에 전력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

선생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위의 세 가지 이야기가 필자의 어린 가슴에 불도장처럼 깊이 새겨진 작은 혼 불의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나는 가끔 자문해 본다. 인생과 역사에 가정은 금물이라고 하지만 만약 나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 함 선생님을 만나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인가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함 선생님을 담임으로 모신 천하의 행운을 누린 우리 반 친구들의 인생행로는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 암울하고 스산한 계절이 연속된 한국의 현실을 견디면서 ...

선생님의 확인을 거친 세 인물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의 모델은 교육가, 사상가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둘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고(日高)학생 후지무라 미사오(藤村 操), 셋째 이야기의 인물은 자유, 인권, 공생을 지향한 사회사상가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다.

필자가 동경대학에서 연구할 기회에 교수들에게 위의 얘기를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부터 처음 들었다고 하니, 그들은 한국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준과 교육방식에 감탄을 자아내었다.

미수(米壽)를 앞둔 ‘열혈 청년교사’의 ‘생활속의 건강’ 실천

1980년 8월 1일자로 강제해직된 필자는 그 동안 심신의 혹사로 인한 좌골신경통과 간 기능의 악화 때문에 두문불출하고 심신의 회복과 안정에 몰두하고 있었다. 지식, 그것도 이른바 지식인에 대한 독한 회의를 품고서. 그 즈음 영어 책으로 처음 만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Jiddu Krishnamurti)에게 새 길을 찾던 필자는 그 중 한권의 책을 번역하였다. 『굴레에서 해방을』(서울: 심설당, 1982)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그 동안 사회와의 접촉을 끊었던 필자가 이 번역 책을 가지고 맨 처음 함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 3명과 함께. 선생님은 당시 부산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남구 남천동의 G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당시 나의 처지를 잘 아는지라 손을 꼭 붙잡고 말보다 더한 격려의 따뜻한 손길을 주셨다. 그 때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내일 우리학교 교사들께 자네가 이 책에 관한 강연을 좀 해 주시게.”라고. 정말 뜻밖이었다. 당시의 시국으로 보아 상상하기 힘든 선생님의 당당한 용기였지만 그 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주위에서 냉대 받던 나를 격려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가슴이 울컥하여 무언가 목구멍으로 터져 나오려는 뜨거운 덩어리를 간신히 가라앉히고 나는 못하겠는 뜻으로 고개를 내저었을 뿐이다. 선생님과 나 사이에 그동안 ‘처음의 부탁이자 처음의 거절’이 이루어진 몽클한 사연이었다. 그 뒤 출판사 측으로부터 30권의 책을 지방에서 주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 ...

1994년 선생님의 부산 남산초등학교 교장정년퇴임식에, 참으로 오랜만에 연락하여 만난 수성초등학교 6학년 1반 친구들이 참석하여 선생님 내외분을 축하해 드리고 기념품도 전달하였다. 그날 저녁 선생님 내외분을 모시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이제 50줄에 접어든 친구들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보람된 활동을 하게 된 은공은 선생님의 열정어린 헌신적 가르침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선생님은 정년퇴임 기념으로 그 동안 교단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소회를 적은 수상집 『삶의 결이 고와야』(부산: 문화인쇄공사, 1994)를 펴내었다. 이 수필집의 발문(跋文)에 김종서 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께서 함 선생님의 인품과 ‘성실한 삶’을 기리는 내용의 글을 쓰셨다.

필자는 2012년 정년퇴임을 한 뒤 부산 남구 광안동 단독주택에서 사모님과 함께 사시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건강하신 모습의 선생님께서 얘기 도중 부산 보훈병원에서 간단한 심장시술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왜 보훈병원일까? 선생님은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단에 서지 않고 1950년 서울의 신학대학에 진학했으나 바로 그해 6월 25일 북한의 서울 침입으로 피난을 하였다. 선생님께서 어떤 계기로 마산의 미군부대를

출입한 때, 자기 흰 옷을 버리고 새로운 미 군복으로 갈아입으려는 우리나라 노인 일꾼을 미군 헌병이 도둑으로 판단하여 때리려는 찰나, 선생님은 그 헌병의 팔을 잡아 내동댕이쳐 버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생님은 공산당 첩자로 오해를 받아 문초를 당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선생님의 당당한 항변으로 미군 법무관을 설득함으로써 무사히 귀가했던 것이다. 이때의 울분과 비통함으로 선생님은 병역이 면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은 자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서 학도병으로 자진 입대하여 바로 그 위험한 진동전투에 배속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참전용사인 국가유공자인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다. 옆에서 이를 듣던 사모님은 빙그레 미소만 지을 뿐. 선생님은 술, 담배도 하지 않는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신앙에 관한 얘기를 꺼내거나 권유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야말로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계시니 말이다.

선생님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때 바로 자택이 있는 광안 역에서 내리지 않고 세 정거장 앞에서 미리 내려 걷는 사이 도중의 아파트에 있는 간이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하신다는 것이다. 헬스클럽이니 어찌니 하는 요란한 운동방법이 아니다. 역시 선생님답게 ‘생활속의 건강함’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선생님은 내년(2016) 미수(米壽)를 맞이하지만 아직도 열혈 청년교사 그대로이시다.

그 이후 선생님의 운동방식을 그대로 본받아 필자는 서울 성북구 정릉의 우리 집까지 버스로 귀가할 때 네 정거장(선생님은 세 정거장이니까 한 정거장 더 많이) 앞에서 미리 내려 걸어오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정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장 교단에서 아침 체조를 지도하던 선생님의 맨손체조 하던 모습에 따라 숨(쉬기), 다(리), 목, 팔, 몸(통), 가(슴), 옆(구리), 등(배)……순서로 하는 체조를 꼬맹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함 선생님을 담임선생님으로 모신지 만 60년이 된 지금도 필자는 이렇듯 아침저녁으로 선생님의 품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년 초등학생’인 셈이다. 전쟁 후 불모지에서 헌신적으로 피워낸 함재홍 선생님의 전인교육의 꽃은 지금도 새롭게 송이송이 싱그럽게 피어나 그 사도(師道)의 향기는 온 누리에 해맑게 풍기리라.

이제 우리는 머리 숙여 선생님의 수상집 『삶의 곁이 고와야』 뒤표지 안쪽 면에 실린 시를 읽으며,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의 옷깃을 여민다.

감사와 찬미
-함재홍 교장님께-

이틀이나 계속 비가 내린 다음날 아침의 산

굽이굽이 안개 자욱한 고요 속에서
희망과 기쁨의 새날이 떠오르는 감격
아, 온 산천의 눈부신 조화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두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과 물과 돌, 우람하고 정갈한 나무들
아니 온갖 생물들이 서로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생명,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었으니까요.

참으로 마음씨 좋은 산은 저희들에게도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랑스런 나, 사랑스런 너에 대한 새로운 인사와
평화를 심게 되는 넓은 마음, 겸손의 새로운 정신을
그리고 순교성인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을 ...

저희들은 새 힘을 얻어 기쁘게 산을 내려오면서
저희 집 아이들의 필요에 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인님과도 이 선물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기쁜 날 되시기를 빌며
올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탐스럽고 영근
삶의 결실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소화영아재활원 가족 드림〉